



일제 항거한 심사 신동욱 선생의 공덕 詩로 기린다



‘심사 신동욱 선생 송가’

김준태 지음/문학들



김준태 시인

구동 광주공원 ‘항일사적비’ 제막식 맞춰

일제 남한대토벌작전·의병전쟁 담아 퍼내

평생을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심사 신동욱 선생’(心史 辛東旭 先生)의 공덕을 기리는 ‘항일사적비’(抗日事蹟碑)가 광주 남구 구동 광주공원에 세워진 가운데 김준태 시인이 심사 신동욱 선생을 기리는 시집을 퍼내 화제다.

광주 시문학계의 거목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18시인인 김준태 시인은 ‘한말항일독립전쟁의병시집-심사 신동욱 선생 송가’(도시출판 문학들)를 펴냈다.

‘송가 형식을 보여주는 이 시집은 ▲을미사변(1865년 명성왕후 민비 시해) 이후 ▲을사보호조약(1905) ▲한일합병(1910) 전후로 전라도를 거점으로 일어난 제1, 2, 3, 4차 의병전쟁을 무대로 하면서 전개되는 일종의 노래형태의 서사시집이다.

심사 신동욱 선생은 일제강점기 함평군 나산면 송암리에서 태어난 유학자다. 특히 ‘남한대토벌 작전’을 전후로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상해임시정부독립자금과 의병장 심남일, 김태원, 전해산 장군 등과 관계하며 군량미, 군수물자 조달 등을 담당한 바 있다. 의병전쟁에 참전한 별호로 ‘제



한말의병장들의 마지막 모습.

/김준태 시인제공

가의병장’이라고 불린다.

김준태 시인은 “민족말살과 문화말살마저 자행한 일제침략 식민지배 속에서 전라도 의병은 당시 조선반도 의병 숫자의 전체 60%를 차지할 때도 있었으며 의병과 일본군의 전투횟수도 단연, 전라도 지역이 40%를 육박할 때도 있었다”며 “한말 의병전쟁 특히 3차, 4차 의병전쟁의 경우 유학자 즉 유생들이 쳐들어오는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붓과 종이와 함께 이끄는 죽창과 화승총을 들어야만 했던 것은 바로 나라지킴이의 운동이요 투쟁이며 전쟁이

었다. 바로 여기에 유학자로서 나라사랑을 행동으로 나신 심사 신동욱 선생, 재가의 병장이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제막된 비문에는 침략자 일제 식민지배와 맞서 싸운 유학자 출신으로서 의병전쟁·항일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심사 신동욱(1870-1942) 선생께서 평생 좌우명으로 삼은 경구 ‘불기심’(不欺心)이 임형택(성균관대 명예교수) 교수의 비문과 함께 새겨졌다. 서예가 학정 이돈홍 선생이 심사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담아 붓으로 옮겼다. /정겨울기자

손형섭 시인 두 번째 시집 ‘파도’퍼내

고향 향수와 노년의 삶을 질박한 언어로 노래

대학교수로 정년 퇴임 후 농부로 변신한 손형섭 시인(78)이 두 번째 시집 ‘파도’(문학예술사)를 펴냈다.

2017년 ‘문학예술’ 봄호에 신인상 수상을 통해 등단한 손 시인은 지난해 회수를 맞아 첫 시집 ‘별빛’을 낸 바 있다.

이번 시집은 나이에 맞춰 78편의 시를 담고 있는데, 일상의 삶을 질박한 언어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제1부 ‘고향의 강’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농사 이야기, 자

연풍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제2부 ‘가을이 간다’는 옛날의 회상과 자연에 대한 교감이 정갈한 언어로 응축돼 있다.

제3부 ‘첫눈은 내리고’는 겨울소묘와 가족이야기 등 훈훈한 기억을 더듬고 있다.

제4부 ‘봄이 오고 있어요’는 꽃피는 봄의 대지와 봄날의 기억을, 그리고 제5부 ‘기도하게 하소서’는 역사인식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시어로 풀어놓았다.

78편의 시편 가운데 ‘영산강변에서’라는 시가 눈길을 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소슬한 바람 불어오는 강변에서/ 서러운 세월 가슴 속에 품고/ 역세게 역새꽃을 품고 있다./ /솟털처럼 하얀 역새꽃이/ 가는 허리 쥐어잡고/ 역세의 흔들림으로/ 지난날의 그리움을 되새기고 있다.” (4,5연)

발문을 쓴 이일기 시인은 “이 시는 지난 간 세월에 대한 회상과 노령에 이른 화자의 현실이 오버랩돼 세월처럼 흐르는 강을 매개체로 한 전체적으로 과거에 대한



회억과 함께 현실적인 쓸쓸함과 애뜻함 그리고 인생의 무상이 작품 바닥에 깔려 있는 서정시의 한 전범으로서 주목되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이처럼 손 시인의 시는 자연의 심상을 통해 내면의 애절한 울림을 토해내고 있다.

한편, 손 시인은 화순 출신으로 전남대 경제학박사를 취득했으며, 목포대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정겨울기자

동물원은 안락한 보금자리인가, 억압의 공간인가

한계 살피며 미래 고민한 ‘왜 동물원이 문제일까?’

동물원은 인간의 즐거움과 볼거리를 위해 탄생했다. 최초 동물원은 제국주의 정복자들의 권력 과시욕에서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동물이 죽거나 멸종했다.

교육과 호기심 충족이라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동물원은 지금도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동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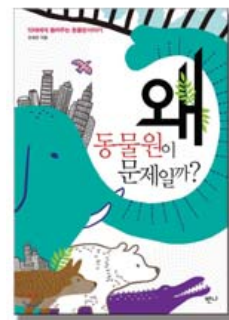
인 창경원 역시 사람이 쉬는 공원 일부에 진귀한 동물들을 보여주려고 만들어졌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윤리행동’ 전채은 대표의 저서 ‘왜 동물원이 문제일까?’는 동물원이 더는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이 아님을 제목에서부터 암시한다.

이 책은 인류 문명과 과정에서 동물원

이 탄생하게 된 배경, 현재 한국 동물원의 실태와 멸종 위기종, 세계 동물원이 공통으로 가진 한계점, 동물 복지의 개념이 도입된 후 진화하고 있는 동물원의 모습을 다룬다.

저자는 자신이 동물원에서 고통당한 동물들을 직접 만나 구조하고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파괴된 자연 서식지의 종 보전과 생명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동물원이 꼭



실천해야 할 점들을 역설한다. 동물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부족과 동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동물원 관리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연합뉴스

새로 나온 책



▲ 행복한 이기주의자 = 웨인 다이어 지음. 오현정 옮김.

2006년 국내에 처음 나와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이 스페셜 에디션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행복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해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책은 요즘 우리 사회 현상들인 1인 가구, 비혼, 초식남녀, 옴로(YOLO·한 번뿐인 인생) 등의 문화를 예견이라도 한 듯 개인의 관점에서 현실적 행복을 이야기한다.

미국 심리학자인 저자는 자신의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을 제시한다. ‘나의 감정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현재를 바꿀 힘이 있다’ 등의 행복론 핵심 메시지를 통해 삶의 주인이 된다면 누구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워 준다. 행복이란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의 마음가짐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21세기북스·1만7천800원.



▲ 처칠, 끝없는 투쟁 = 제바스티안 하프너 지음. 안인희 옮김.

1907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난 저자는 1938년 나치의 폭정을 피해 영국으로 망명해 ‘옵서버’ 편집장까지 오른 인물이다. 2차 대전 때 영국과 독일은 양측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독일을 잣대며 속으로 몰아넣은 영국의 전쟁 영웅 이야기가 기묘하다.

저자 눈에 비친 윈스턴 처칠의 삶은 수난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쓸모없는 귀족 자제, 가문의 수치였고 아버지 눈에 무능력자일 뿐이었던 처칠은 스물한 살이 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환골탈태한다. 그리고 권력자이자 전쟁영웅으로 살아나간다.

저자는 “처칠은 무엇보다 먼저 전사였고, 그런 다음에야 정치가였던 사람”이라며 “처칠은 타고난 전사임에도 매우 인간적이었고, 자주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원본은 1967년 출간됐다. /돌베개·1만6천원.



▲ 나는 걷기로 했다 = 앤드루 포스소펠 지음. 이주혜 옮김.

대학 졸업 후 스물세살이 되던 해 저자는 아메리카대륙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6천400km를 걸었다.

어른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시기였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걷기로 했다. 1년에 걸쳐 미국을 횡단하며 만난 사람들에게 그는 ‘만약 당신이 스물세 살로 돌아간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라고 물었다. 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은 그에게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펜실베이니아주 채즈퍼드에서 캘리포니아주 하프문베이에 이르는 1년간의 걷기 여행을 통한 저자의 성장기가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김영사·1만4천800원.



▲ 인간의 마지막 권리 = 박종구 지음.

지난해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돼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커졌으나, ‘죽을 권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철학, 윤리학, 신학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사회윤리학을 강의한 저자는 죽음을 인간의 권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고 진부한 생명 윤리가 작동한다며 새로운 시선으로 죽음을 바라보자는 제언한다. 죽어가는 사람의 죽음을 유예해야 한다는 과거의 윤리는 ‘평화로운 죽음, 인간다운 죽음’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라는 얘기다. /동녘·1만6천원.

오천경매

투자

모든 상담

010-3605-5000

임야

삽니다.010-6834-7400

※지분물건 환영, 신속처리※

금매전문

즐거

공인중개사

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경매투자

오천경매

010-3605-5000

[금매]

○ 상가빌딩 : 광주역 역세권 대로변코너

대지800㎡ 간평463㎡ 연건평3,700㎡

금매28억(보2억5,000 월1700)=시세반값

○ 운암동 모텔 객실21 층상기 주차장있음

월매출 700만원 금매4억

○ 유럽식 최고급 상가주택대229㎡

3층 건335㎡(편백, 황토방, 불박이, 최상인테리어)

= 무등산조망 대로변, 변호사, 의사전문직

사무실 겸용 최적 == 매가 상담후 결정

○ 담양읍 백동리 6차선도로변 잡3,700㎡

금매16억3,000 전시장, 가든, 병의원 등 최적

○ 오치동 주상복합 대385㎡ 건660㎡

금매 15억2,000(보6억5,000 월910만원포함)

○ 대인동 대로변 코너 상업지 대지 1100㎡

연건평5,300㎡ 금매60억 최고요지임대용 최적

***상가빌딩, 모텔, 가든, 내대지

지방, 섬땅등 투자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